

# 톨스토이 문학 한가운데 숨쉬는 동양



톨스토이와 동양 김려춘 지음 이향재 외 옮김 인디북 펴냄 1만원

19세기 동서양의 만남. '일방통행'이란 단어부터 떠오른다. 서양은 문명의 시혜자로 '우쭐' 했고, 동양은 '빼죽거리'는 수용자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관계 자체가 쌍방향성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접근 태도도 달랐다. 동양은 근대화의 이정표를 서구에서 찾으려 했고, 서양은 '제척된' 동양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달랐다. 동양에 대한 그의 태도는 쌍무적이었고, 진정한 상호성을 원칙으로 했다. 동양만이 톨스토이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톨스토이도 동양의 정신적 유산에 다가갔다.

기존 동서양의 편협한 상호인식, 그리고 소통을 위한 대화, 책 <톨스토이와 동양>은 평행선상에 서 있는 동서양의 만남들을 '톨스토이'라는 인물에서 그 접점을 찾고 있다. 때문에 논의 초점은 동서양의 관계성 조명, 톨스토이의 동양관 성립과정에 철저히 맞춰져 있다. 지은이 모스크바대학 김려춘 교수는 우선 이 책의 서두를 톨스토이의 동서양 관계부터 규명하는데서 출발한다.

"아시아 민중들에 대한 '문명화된 우월성'은 톨스토이에게 전혀 낯선 것이었다. 그는 오히려 반대라고 했다. 이런 평등의식은 결코 '만들어진 것'도, '인위적인 것'도 아니었다. 러시아와 동양은 역사적·심리적 유산이라는 그의 확신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다."

이 같은 톨스토이의 동양관은 그의 문학사상 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보편적 진리를 향한 모색 과정에서 그의 동양체현은 큰 공명을 일으킨다. 최소한 동양은 지적 확장을 위한 지식의 대상이 아니었고 정신적 발전을 위해 동양은 지혜 그 자체였다.

그럼 톨스토이가 경험한 동양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인생 말년에 접한 노자의 <도덕경>이다. 이를 통해 톨스토이는 동양의 모든 것을 '자기화' 한다.



문학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들었던 톨스토이. 그는 소위 '동서양인(東西洋人)'의 삶을 살아온 대문호였다.

또 노자의 무위론은 그의 학문적 세계관에 일대 전환을 일으킨다. 무엇보다도 노자의 자유로운 사고 방식, 표현의 간결성, 단편적인 구상 등은 톨스토이가 독자적인 사고를 하는데 자극제가 됐다. 심지어 톨스토이는 1891년 자기 생애에 큰 영향을 끼친 11권의 서적을 엄선할 때, <북서서>와 함께 <도덕경>을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꼽을 정도였다.

톨스토이는 노자로부터 배운 무위의 삶을 이렇게 말한다. 톨스토이와 노자의 사상적 해후는 시공을 초월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교훈을 던져주는데 충분하다. 물질숭배에 빠진 현

대인들에게 정신적 존재로서 인간성을 재발견해야 한다는, 톨스토이의 사상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톨스토이의 인식도 이 책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톨스토이는 "한국인은 동양적 의미에서 볼 때 대단히 문명화된 국민"이라고 말한다. 한국은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동양문화의 항구적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조국 러시아를 포함한 서구 열강의 식민지 정책을 철저히 비판했다. 러일전쟁 직후, 1904년 미국 '노스아메리칸'지가 "러시아와 일본 중, 당신은 어느 쪽인가 아닌 양쪽 다 반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나는 러시아도 일본도 아니다. 정부의 기만에 속아 자기의 행복과 양심을 버리고, 전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양국의 인민들의 편"이라고 답한다. 이러한 그의 반전관은 1906년 조선통감으로 한국에 온 이토 히로부미를 '미치광이', '타락한 무도의 인간'이라고 극렬히 비판한다.

톨스토이와 동양의 관계를 고찰한 이 책은 그 중요한 취지에도 아쉬운 대목이 곳곳에 발견된다. 8편



나는 문학을 왜 하는가 -우리시대 문학가 일흔한 명이 말하는... 열화당 펴냄 | 1만2천원

최근 '한국문학에 벼락같이 쏟아진 행운'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소설가 김훈씨는 아직도 연필을 꼭꼭 눌러가며 원고지에 글을 쓰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무릎으로 온 몸으로 나만의 문장을 밀고 나간다"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하는 소설가 김훈씨는 다복한 경우이겠지만, 우리사회에는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되는 소위 전업 작가들이 상당히 많다. 몸과 정신을 고통스럽게 육박해가고 생활고를 감내하면서 글 쓰기를 평생의 업으로 받아들인 문인들. 그들은 왜 문학의 길을 선택했을까.

<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열화당)는 고은 김지하 신경림 조정래 황석영 황동규에서부터 공지영 안도현 배수아 장석남 김연수에 이르기까지 우리시대 대표적인 문인 71명이 문학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지금까지 문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밝힌 책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우리시대 문학가들이 '문학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성찰(省察)로서, 한 시대의 사상과 정서를 담아내는 문학작품이 탄생하게 된 원천인 작가

## 결핍을 극복하려고 나는 쓰네

의 '내밀(內衛)한 문학사(文學史)'이자 '자기고백록'이다.

한국 시단의 원로인 신경림씨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나무를 심는 기분으로 시를 쓴다. 내가 심는 나무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단 열매를 맺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보고도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무슨 상관인가, 그 나무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보는 사람, 아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을 줄 것인데"라고. 시인 고은씨는 불가피성 말고는 본인 삶의 궁핍한 역경 가운데서 문학의 이유를 찾아낼 다른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그저 시인이 되고 싶었을 뿐이다. 밑물이었다. 그저 시인이 되었을 뿐이다. 철물이었다"라고 말한다.

이 책에는 이렇듯 문학을 하게 된 동기와 문학을 본인 삶의 뿌리로 자부하는 갖가지 이유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져 있다. 발레리는 "나는 약하니깐 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결핍과 있기 때문에 쓴다는 얘기가. 발레리의 경우처럼 문학은 대개 세상과의 불화의 기록이다. 오랜 전 김시습은 "끝없는 시를 솜과 같아 달라다자 달라붙으니/ 맑은 시 아니고는 고칠 수 없네"라고 노래했다. 하루에도 수백 수의 시를 지어 물에 띄워 보내며 세상의 시름을 달랠다는 김시습의 일화는 꽤 알려져 있다. 실존적인 것이든 본능적인 것이든 혹은 사회적인 것이든 문인들은 결핍 때문에 그것들을 이기려고 글을 쓴다. 그리고 문인들은 사람과 세상을 온전히 그리고 열렬히 사랑하기 위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결핍이라 불릴 만한 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문인들은 세대를 바꿔가며 새롭게 등장할 것이고, 또 독자들은 결핍의 소산인 문학 작품을 끊임없이 만나게 될 것이다. "작가는 모든 비인간적인 것에 저항해야 하고, 그 실천이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킨다"고 말한 빅토르 위고의 진술처럼 말이다.

■문태준(불교방송 PD·시인)

"만일 내가 사람들에게 충고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싶다.

'한 순간이라도 좋으니 일을 중지하고 주위를 살펴봐라. 즉 무위의 삶을 살아보라. 그리고 나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라고..." —톨스토이(노자로 부터 배운 무위의 삶에 대하여)

## 해 동 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각종누비**

- 면누비(떡볶)
- 모직누비
- 폴실크 누비
- 무명누비
- 손누비 (명주, 무명...)

**동복**

- 고급모직
- 무명
- 각종 떡볶, 면

**장삼, 가사, 조끼, 몸매, 셔츠**

대구 고속터미널 중간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 경복종무원 부설 범패교육원에서는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을 교육하고자 2005년 신입생을 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총 2년 과정, 대한민국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 강사: 경허상진스님 (영산재 보존회 회원)

- 1 학년 과정
  - 사 물: 목탁, 요령다루는법
  - 송 주: 도량식, 종성송
  - 예 경: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사시불공, 삼보통칭, 피공, 각단불공등
  - 재의식: 49제 및 천도의식, 시달림등
  - 시 식: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일반시식등

- 2 학년 과정
  - 상주권공: 할향, 등계, 합장계, 고행계, 계계, 세수계, 복창계, 사방찬, 참회계, 시련, 대령, 관육, 용호계(신중작법39원), 상단권공, 중단권공, 관음시식, 봉송회향(49제 및 일반천도의식)
  - 바라춤: 요감(막바라),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화의재바라, 명바라
  - 나비춤: 도량계, 다계, 운심계, 육건이(윤남), 사방유신
  - 사 물: 태경, 북, 요령, 목탁(전통의식타법)
  - 특 강: 향화계작법, 가지계, 쾌비운, 종사이운, 점안의식 등

2. 개강일시: 2005년 3월중 (1학년 매주 목요일 오후2시~6시까지, 2학년 매주 금요일 오후2시~6시까지) 편입가능
3. 입학자격: 종단과 승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월 10만원
5. 강의장소: 태고종 대구 경복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7. 접 수 처: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 경복종무원 (전화접수가능)
8. 접수기간: 2005년 2월 25일까지
9. 연 락 처: 053)622-3702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 경복종무원 부설 범패 교육원

##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보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 해 보면 조상영 보다도 더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중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기워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 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기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됩니다.
-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법화 정법회.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